

입문

보살사상의 체계적 학술서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이봉순 지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함축시켜 표현할 수 있는 보살사상은 불교의 핵심사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살사상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은데다,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성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 책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초기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보살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10년 가까이 보살사상 연구에 매진해 온 이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보살의 의미와 보살의 실천행법, 수행의 진정과 열반의 중도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부파불교의 대표적 학파인 실외유부(說一切有部)와 대중부(大眾部) 등의 보살사상을 살폈다.

불광출판부, 15,000원 (02)420-3200

불교입문의 교과서

■절에서 배우는 불교/해자님 엮음



자성을 고요한 마음으로 연마하고 탐·진·치 번뇌에 오염된 심신을 씻어 내고 해탈로 가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곳 절에는 산문을 시작으로 전각, 예배의 대상, 조형물, 공양구, 의식구, 장엄구, 상징물, 생활용품 등이 중생들의 해탈과 교화의 방편으로써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들을 대하면서 그 속에 깃든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으며, 또 궁금해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해소할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뿐 아니라 그 속에 깃든 깊은 의미와 뜻을 바로 전달하는데 교과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절을 찾는 일반인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출판사, 12,000원 (02)313-5047

에세이

참회와 발원의 본질-기도

■영험도량에서 소원 성취한 이야기/진현중 지음



기도를 무작정 현재의 복을 비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영험히 말해 기도는 참회와 발원을 본질로 한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을 가꿔가는 적극적인 수행방법이다. 간절히 기도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신심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광공산 것배워, 강릉 동명당가사, 여수 향일암, 영천 거조암 등 전국적 스승 다섯 곳 기도도량에서 기도를 통해 겪은 갖가지 영험담을 소개한다. 고전적 이야기가 아닌 현대적 영험담이라 더욱 공감할 수 있다. 저자는 '기도는 근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불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대원미디어, 5,000원 (02)318-0482

기타

마하리쉬의 자기 탐구

■있는 그대로/마하리쉬 지음



1930년 입학하기까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였던 스리 리마나 마하리쉬. 그의 가르침의 궁극은 해탈에 있다. 그리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자기탐구'라고 부른 수행법을 통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다. 참자의 본성은 무엇이며, 참자 탐구를 위한 이론과 수행방법 등을 문답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장 앞에 그 장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도왔다. 무엇보다도 질문자의 수준에 맞는 답변으로 '자기를 찾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문화, 8,500원 (02)403-1207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악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해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픈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내리키 여지없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악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있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죽어 없으며, 불이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받아 지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825-9085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종 편/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종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론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알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종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화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연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역사에서 찾는 과학정신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박성래 지음
세계 최고의 목관인쇄물인 다리니경에는 우리의 과학정신이 얼마나 어떻게 깃들여져 있는가. 환황사종과 예밀레종도 마찬가지.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불심과 창조적 정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도선스님의 풍수지리는 과연 과학인가. 그리고 천문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과학'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참담과학에도 결코 주목할지 않는 우리의 빼어난 과학정신과 그 유산들을 소개한다. 참성대, 토목건축, 측우기 등 각종 유산들을 통해 과학에 있어서의 민족성도 언급한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과학기술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진다.
교보문고, 7,500원 (02)3973-500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어 자세히 말한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올바른 삶을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형 빈 마음만 남는 책. 그래이안 새로운 무욕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
운주사 6,000원 (02)720-9372

詩로 살아나는 선사들의 선문답
■달마의 침묵/최승호 지음
'불림문자란 나에게 죽음이고 침묵이며 결국 실직(失職)을 의미한다. 나의 직업은 시인이기 때문이다'고 시인 최승호씨는 말한다. 하지만 그는 기계가 그 경지의 자유로움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의 법은 마음으로 마음에 전할 뿐이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가래침'에 비유한다. 찬철한 가르침은 가래침과 같아서 아무 것도 받아먹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오랫동안 선의 세계에 천착해 온 저자가 선사들의 선문답을 시 형식으로 쓴 우화집이다. 선사들의 불림 문자 세계를 문학으로 형상화시킨 노력이 돋보인다.
열림원, 7,000원 (02)733-5045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종본스님 지음
바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유회살에 대한 연구 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뜬금없고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펴보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카사키 지기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축적한 해박한 지식들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맹점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흥사성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능인 불교 연구소 연구원 초빙

실천 불교, 생활 불교, 현대 불교를 표방하고 21세기의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고 있는 계단 법인 능인불교선양원에서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유능한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초빙 분야 및 인원

Table with 4 columns: 근무처, 전공, 자격, 초빙인원. Rows include 능인불교 연구소, 불교학 박사학위 소지자/영어 능통자, 약간 명.

2. 초빙 자격

- 1) 불교학 관련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소지 (스님의 경우 박사과정 수료지도 가능함)
2) 수계를 받은 불교 신자 3만 40만 미만인 분
3)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실적(300%이상인 분)

3. 대우

- 1) 6개월 정도의 수습 연구원 기간을 거쳐 1-3년 단위로 계약 임용함
2) 정식 연구원의 경우 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국립대학교수 수준의 대우를 할 예정임

2. 제출 서류

- 1) 이력서(경력서지 포함) 1부
2)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 석 박사) 각 1부
3) 학위(기술) 시본(인국) 복사 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 재단 신고서를 첨부 21부
4) 연구 실적 목록 1부 5) 연구실적증 각 1부씩
6)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로 3매 이내)
7) 연구 계획서(A4 용지로 5매 이내)
5.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TEL: 577-5840)
6. 접수 마감일: 1998년 12월 31일
7.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본 법인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선원/재단법인 능인 불교선양원 능인 불교 대학

달마도 · 추사佛字

동양화가 백포 락남배 선생이 수행의 실념으로 한점 한점 직접 그렸습니다.

수맥차단 氣를 방출하며 액을 소멸시키는 달마도의 영험을 직접 느껴 보십시오.



백포 락남배

■중요약력

- 조선대학교 졸업
-총독 입선 10회
-국립특선 5회
-국립수정작가
-국립초대작가
-전남대학교 사대교수 역임
-일본국 전일본 문화대훈위 수상
-일본국 전일본 특별선교 심사위원

구입문의 : 대구여래원 053)655-2227 / 011)808-8880
대우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원
우체국 704148-0019991 대구여래원

■선착순 접수, 소액 투자까지■



A-1 달마도 족자 시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2 달마도 족자 시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3 달마도 족자 시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4 달마도 족자 시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5 달마도 족자 시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B-1 佛字 족자 국내유일 추사진적 보급가액 : 10만원 (표구 족자)